

# 카카오·네이버 규제에 외인 1조 팔고 개인 1.5조 샀다

금융플랫폼 규제에 지난주 주가 급락 카카오, 나뭇·외국인 지분을 타격 커 증권업계 전문가 “주가 급락 과도”

지난주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가 불거진 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잇달린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을 1조631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531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매도·매수세가 플랫폼 기업 전반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은 카카오(7498억원), 카카오뱅크(3459억원), 네이버(3133억원)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은 동일 종목인 카카오(1조411억원), 네이버(4906억원), 카카오뱅크(1943억원) 주식을 쓸어 담았다. 이는 주초의 흐름과 정반대다. 6일과 7일 양일간 외국인은 카카오를 41억원어치 사들인 반면 개인은 오히려 38억원어치를 팔았다.

흐름이 반전된 건 7일 금융당국이 금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TOP 5>

9월6일~7일		9월 8일~10일	
종목명	순매도액	종목명	순매도액
카카오뱅크	-1918억원	카카오	-7498억원
엔씨소프트	-1055억원	카카오뱅크	-3459억원
삼성전자	-636억원	네이버	-3133억원
LG전자	-613억원	크래프톤	-2236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482억원	아모레퍼시픽	-769억원

\*검색기준일 2021년 9월 13일

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펀드, 보험 등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와 비교·추천 등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업(금융법 적용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은 앞으로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 이행·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도기간은 오는 24일부로 종료된다.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가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금융플랫폼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10일 카카오의 주가는 13

<개인 투자자 순매수 TOP 5>

9월6일~7일		9월 8일~10일	
종목명	순매수액	종목명	순매수액
카카오뱅크	2200억원	카카오	1조411억원
삼성전자	1872억원	네이버	4906억원
엔씨소프트	782억원	카카오뱅크	1943억원
LG전자	560억원	아모레퍼시픽	132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460억원	삼성전자	1096억원

/한국거래소

만원(증가 기준)으로 7일(15만4000원) 대비 15.6% 급락했고, 네이버 주가는 10일 41만원으로 7일(44만4500원) 대비 7.8% 하락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산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확대돼 나뭇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가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은행보험 감독위원회가 플랫폼이 금융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판매 대

리·중개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며 “이후 엔트그룹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업을 조정해 금융투자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카카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0일 31.28%까지 낮아졌다.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카카오뱅크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 3일 7.16%로 고점을 찍은 후 10일 5.54%로 떨어졌다.

주가가 나뭇이나 외국인 지분율 변화에 있어 카카오가 입은 타격이 네이버보다 가시적인 이유는 카카오의 금융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같은 금융업이 20~25%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카오페이 총 매출액 중에서도 투자와 대출, 보험 서비스를 포괄하는 금융서비스 매출액이 전체의 22.66%를 차지했다. 결제서비스 매출액 비율은 71.95%였다.

증권업계에선 주가 급락이 과도했던 평이 주를 이룬다. 먼저 카카오는 6개월 전부터 카카오페이증권이나 KP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해 온 상태다.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플랫폼이 계약주체로 오인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영업수익 중 95% 이상이 간편결제 수익이라 증권이나 보험 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력 서비스인 대출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모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하게 확립될 수 있고, 규제가 생기는 만큼 진입장벽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 DDR5 세대교체 본격화... 최대 실적 기대

### 株라쿨라의 종목

#### 아비코전자

내년 1분기부터 서버 적용 시작 국산화로 인한 점유율 확대 지속



수적인 수동소자 물량이 늘어난다.

아비코전자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저항기와 인덕터 등 수동소자가 주력 품목이다. 수동소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 칩저항기와 메탈파워인덕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성전기와 아비코전자여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아비코전자의 수동소자 매출 가운데 고부가제품인 메탈파워인덕터의 비중이 2014년 0.3%에서 2020년 2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DDR5용 납품이 본격화돼 국산화로 인한 점유율 확대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동소자 매출은 2020년 742억원에서 2023년

944억원으로 2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전기차 비중 확대도 호재로 작용한다는 전망이다. 차량 내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수동소자 수요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향후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을 반도체가 제어할 것이고, 차량안전장치 기능이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가 커져서 이를 관리할 수동소자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원은 “인덕터 및 저항기 채용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서 4배, 전기차(EV)에서 5배 이상 증가하며 단가 역시 3배 이상 높다”며 “이에 따라 전장용 수동소자 매출은 2018년 68억원에서 2021년 109억원으로 6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비코전자의 100% 자회사인 아비코테크의 흑자 전환도 가시화된 상태다. 아비코테크는 전장용 PCB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현대엔지니어링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수주

### GS건설과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이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2일 개최된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119 일원 4만661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937가구, 오피스텔 703실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183억원이다.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부산1호선 좌천역이 반경 250m 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 사업장 주변으로 다수의 개

발 호재가 있어, 향후 부산역 인근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 조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원의 니즈에 부응하는 최적의 사업조건을 제시한 것이 이번 수주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시정비사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1조4166억원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을 처음 달성한 이후 올해는 이번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1조4500여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다.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약 2조 640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조2000억원 이상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기록하게 됐다.

/정연우 기자 yw964@

## KB증권 친환경 소재 사용 ‘에이블 스타+ 카드’

### MZ세대 위한 특화 혜택

KB증권이 MZ세대(2030)를 위한 특화 혜택을 제공하고 증권사 최초로 카드 플레이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체크카드 상품인 ‘able Star+ 카드(에이블 스타플러스 카드)’를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ble Star+ 카드’는 언택트(Untact) 소비 확산과 동시에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

지털 콘텐츠(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 6개 가맹점), 이동통신요금(SKT·KT·LG U+) 5% 할인,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5%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의 월간 통합할인 한도(각 영역 월 5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 KB증권 MTS ‘M-able(마블)’과 ‘M-able 미니’에서 국내주식 매수 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주식 쿠폰 5000원

권(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도 함께 제공한다.

KB증권은 ‘able Star+ 카드’ 출시를 기념해 10월 15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하고 10월 31일까지 건당 3만원 이상 한 번이라도 결제 시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1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신규 출시된 ‘able Star+ 카드’는 MZ세대를 위한 체크카드 특화 혜택 외에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카드 플레이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 24시간 환전서비스

삼성증권은 올 추석 연휴에도 고객들이 해외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데스크’를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목해야 할 만한 글로벌 경제변수들이 많아 실시간으로 ‘투자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의 늘어난 니즈를 반영해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해외주식데스크 운영과 더불어 심야에도 환전할 수 있는 24시간 환전 서



스와 이벤트도 진행중에 있다.

해외주식 이벤트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양유경 기자